

▶ 군산근대역사박물관 기획전 '여성독립운동가 - 삶, 이름, 기억'

# 일제강점기 조국 독립 위해 싸워왔던 여인들의 삶 조명

'삶 속의 독립운동' 등  
5가지 주제로 구성돼  
한민족여성네트워크와 연계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이 일제강점기 독립을 위해 사회 곳곳에서 노력한 여성독립운동가의 삶과 역사를 알리기 위해 '여성독립운동가 - 삶, 이름, 기억' 전시를 열고 있다.

지난달 31일 열려 3개월간 선보이는 이번 전시는 여성으로서 근대의 여덟고 암울한 시대를 감내하며, 독립투사로 빛을 발했던 여성독립운동가들의 삶을 통해 한국여성의 위대함을 느낄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전시의 구성은 본 전시공간 '여성독립운동가 - 삶, 이름, 기억', 보조 전시공간 '돌아온 이름', 체험공간 '태극기의 꿈'으로 조성되었다.

전시는 1부 '삶속의 독립운동', 2부 '이름을 쓰다, 여성계몽운동', 3부 '대한민국 기억, 여학생의 독립운동', 4부 '이내의 삶, 어머니의 삶... 독립운동가의 삶', 5부 '여성요원의 이름, 대한민국임시정부'라는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전시는 근대문화 중심도시를 표방하



'여성독립운동가 - 삶, 이름, 기억' 전시 개막식이 지난달 31일 군산근대역사박물관에서 열렸다.

는 군산시가 '역사를 잊어버린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생각으로 독립운동가의 정신을 후대에게 전하기 위해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진행됐다.

특히 군산에서 진행된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와 연계해 여성독립운동과 근대도시 군산의 면모를 다시 살펴보는 계기로 삼고자 계획하고 있다.

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기획전은 제1회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행사가 우리고장 군산에서 개최됨에 따라 독립을 위해 노력

했던 여성독립운동가의 역사를 집중 조명하고자 기획됐다"며, "이번 전시가 여성독립운동가에 대한 관심과 연구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은 작년 한 해 동안 30여 회의 다양한 전시 및 공연을 통하여 살아있는 박물관을 운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올해의 경우 매월 평균 8만여명이 방문, 군산 원도심 활성화와 근대화사업의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군산=장 현 기자

## 1989년 이후 슬로바키아의 문화 구현

익산예술의전당, 27일까지 '극장 포스터' 전 개최

당시 공연 정보 담고있는 그래픽아트 60여 장 등 선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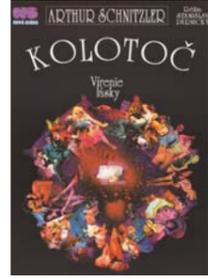
익산예술의전당은 오는 27일까지 미술관 1층 상설전시실에서 '슬로바키아 극장 포스터' 전을 개최한다.

익산예술의전당 미술관과 한국국제교류재단(KF)·주한슬로바키아대사관이 공동주최하는 이번 전시는 1989년 이후 슬로바키아 공연 및 연극 문화 그리고 당시 시대상과 문화를 구현한다.

그래픽아트 60여 장과 사진작가인 라디슬라브 스트루하르가 촬영한 슬로바키아 풍경 사진 등이 전시된다.

전시회는 1989년 11월 체코슬로바키아의 공산체제 붕괴를 야기한 벨벳혁명 이후, 과감하고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제작된 극장포스터를 통해 시대상을 조망하고 있다.

공연에 대한 정보를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극장 포스터는 밀란 바셀리, 스페토자르 미들로, 블라디슬라브 로스토카, 그리고 국제그래픽디자인협회 수상자인 두산 유네 같은 디자이너 및 무대연출가들의 관심을 통해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정치적 억압 속에서도 창의적인 시선을 담고자 했던 예술가들의 노력이 깃든 극장 포스터는 오늘날 슬로바키아의 문화를 대변하고, 도시경관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아울러 이번 전시회에는 사진작가인 라디슬라브 스트루하르가 촬영한 슬로바키아 풍경 사진 시리즈 '매지컬 슬로바키아'도 함께 감상할 수 있다. 라디슬라브 스트루하르는 슬로바키아에서 20여 개의 전시를 개최했고, 미국·캐나다·벨기에·노르웨이·포르투갈 등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며 다수의 전시를 선보였다.

전당 관계자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중유럽 특유의 분위기와 색채를 감상할 수 있을 뿐더러 당시 사람들의 히로에라이 담긴 이야기들을 상상해보며 슬로바키아 사람들의 문화와 시각예술세계를 접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정해은 기자

## ▶ 전주소리문화관서 서정미 독주회 '죽성만향'

오랜 시간  
빛어낸  
대금 선율  
관객 앞에



5일 오후 7시 30분에 공연

대금 연주자 서정미가 오는 5일 오후 7시30분 전주소리문화관에서 독주회 '죽성만향'을 연다.

서 연주자는 조선시대부터 전해져 오는 곡으로 풍류를 좋아하는 선비들에 의해 주로 연주됐던 '천년만세'를 비롯해 '원장현류 대금산조 전바탕'과 '대금 거문고 병주' 등 전통곡을 들려줄 예정이다.

이들 곡 중, 장장 40분 동안 연주해야 하는 '원장현류 대금산조' 전바탕은 긴 호흡이 필수. 서정미 씨는 "2012년 이후, 오랜 공백 끝에 갖는 무대인지라 '전바탕' 정도는 해야 하

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반복의 반복을 거듭"하며 기열 차게 연습했다고 한다.

그는 정기적으로 독주회를 갖는 것은 "이를 통해 연주자로서 성장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며 "나태하고 불안한 마음이 자리하지 않도록 요즘도 매일 연습을 거르지 않는다"고 했다.

이날 무대에선 오랜 시간 공들여 빛어낸 그의 풍성하고 섬세한 대금 선율을 감상할 수 있다.

서정미 씨는 전북도립국악원 관현악단 연주단원으로, 원장현류 대금산조 전바탕회장과 전북대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정해은 기자

## 전통한지, 읽고... 만지고... 느끼다...

전통문화전당, 독서대전서  
한지 샘플 일부 보급

전주시가 전주전통한지의 산업화를 위해 출판사 관계자와 시민,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한지 우수성 알리기에 나섰다.

(재)한국전통문화전당 한지산업지원센터(이하 전당)는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경기전 등 전주한옥마을 일원에서 진행되는 국내 최대규모의 독서·출판·문화행사인 '2017 대한민국 독서대전'에 전주전통한지 샘플을 일부 보급했다.

이는 이번 독서대전을 통해 전주한지에 관한 관심이 높아진 고소설 등 수많은 책을 출간한 출판의 도시 전주의 위상을 강화하고, 홍보를 통해 전주전통한지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한지산업지원센터는 또 시민들이 전주전통한지를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번 독

서대전에서 전주의 정신 '꽃심'을 목판으로 제작, 전주전통한지 위에 목판인쇄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진행했다.

이와 관련, 한지산업지원센터는 지난해 행정자치부에서 정부포상 증서 등의 품격향상을 위한 TF팀을 운영해 조선시대 교자용 한지와 근접하게 재현한 전통한지 제작에 참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전주한지장인 4인이 임명장이나 훈포장용 전주전통한지를 제작하도록 해 왔다.

이렇게 생산된 훈포장용 전주전통한지는 현재 농촌진흥청과 전북도교육청, 도내 시·군 교육지원청, 농협 등에서 임명장이나 훈포장

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시와 한지산업지원센터는 훈포장용 전통한지 보급을 늘리기 위해 전북대학교와 전주대학교 등 도내대학, 혁신도시 공공기관 등을 상대로 홍보도 진행하고 있다.

오태수 한국전통문화전당 원장은 "2017 대한민국 독서대전을 통한 전주전통한지 샘플 보급 및 목판체험으로 전주한지의 인지도 확산에 기여하고, 전주한지의 신뢰성 확보를 통한 도서출판 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해 전주한지를 브랜드화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취득세 0원**

**보험료 0원**

**자동차세 0원**

**초기비용 0원**

**"자동차 이젠 소유에서 사용으로"**

신차 장기렌터카.오토리스 전문업체

**"월사용료는 전국 최저 가격"**

대표 이영근

**국산차.수입차 전차종 신차 장기렌트.오토리스**

**대표전화 : 1600 - 2542**

**스페셜오토리스.렌터카**

전국 어디든 상담가능!!  
지사 개설 문의